



5G, 3월 일반에 상용서비스 갈길 바쁜 이통사

영화 2400편 다운 '1초' 7배 빠른 인터넷 서비스



LGU+, 라우터 장비 인터넷 백본망 구축
국내 통신사업자 중 최초로 64Tbps 적용
VR·AR·고화질 영상 등 유선-무선 연결

LG유플러스는 현재 장비보다 7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우터 장비를 인터넷 백본망에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초고화질(UHD)급 영화 1편을 담을 수 있는 DVD 2400장 분량의 데이터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86테라비피에스(Tbps) 라우터 장비를 적용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라우터 장비의 7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는 가상·증강현실(VR·AR) 초고

화질 영상 등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무선망과 유선망을 연결해주는 라우터 장비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 국내 통신사업자 중 64Tbps가 넘는 라우터 장비를 상용망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비는 LG유플러스와 노키아가 함께 개발했다. 지난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멀티테라비트 네트워크 프로세서인 FP4 프로세서가 적용됐다. FP4 프로세서는 하나의 칩셋으로 2.4Tbps 속도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이상현 NW개발담당은 "인터넷 백본망에 86Tbps 라우터 장비 구축으로 네트워크 전 구간에서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5G 서비스 제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인터넷 백본망에 구축된 86Tbps 라우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VR로 즐기는 게임·스포츠 5G '킬러콘텐츠' 확보 속도



'MWC 2019'서 VR 콘텐츠 등 공개 전망
SKT, 인기 온라인 3종 IP 사용계약 체결
KT, 앱노리와 협업 멀티플레이 게임 선보

SK텔레콤과 KT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를 앞두고 5세대(5G) 이동통신 '킬러 콘텐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가상현실(VR)에 주력했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넥슨, 앱노리와 손잡고 MWC 2019에서 VR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넥슨과 인기 온라인 3종 지적재산권(IP)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게임 3종은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버블파이터'다.

이번 계약으로 SK텔레콤은 IP 3종을 활용해 '카트라이더 VR(가칭)' 등 5G 스마트폰용 VR 게임을 올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게임 개발은 넥슨의 주요게임 담당 출신이 주축이 된 VR 게임 전문사인 '픽셀픽스'와 SK텔레콤이 협업한다.

카트라이더 VR은 5G스마트폰의 초고속, 초저지연 속성을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카트를 조종하는 느낌을 제공할 전망이다.

넥슨과 추가 협력뿐 아니라 대형·중소개발사들과 함께 5G VR게임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앱노리와 손잡고 5G 기반 멀티플레이 게임 'VR 스포츠'를 선보인다.

VR 스포츠는 야구·탁구·배드민턴 등 인기 스포츠 종목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게임이다. VR 기기를 착용하면, 실제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실감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KT는 앱노리와 협력해 지난해 말부터 VR 스



KT가 '기가 라이브 TV'를 통해 선보일 'VR 스포츠' 야구 편에서 타자가 플레이하고 있다. /KT



모델들이 VR기기를 쓰고, 카트라이더 게임 화면을 시청하고 있다. /SK텔레콤

포츠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다.

이번 MWC 2019에서 공개되는 VR 스포츠 야구 편은 기존 PC 기반의 유선 VR 기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던 게임을 무선 독립형 VR 기기 기반의 '기가 라이브 TV'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다. 여러 사람이 무선망에 접속해 야구 게임을 할 수 있다. KT는 MWC 2019 현장에 마련된 KT 전시관에서 투수와 타자가 즐기는 멀티플레이 야구 게임을 시연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센서 하나로 생체인식에 VR·AR 구현까지 삼성 '5G 장비'로 MWC 전세계에 송출

LG이노텍, G8 쌍극 센싱모듈 양산

LG이노텍이 최첨단 3D 센싱 모듈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최근 'LG G8 쌍극' 전면에 장착되는 ToF(비행시간 거리 측정) 모듈을 양산했다고 19일 밝혔다.

ToF 모듈은 사물의 입체감과 공간정보 및 움직임을 인식하는 최첨단 3D 센싱 부품이다. LG이노텍이 만든 제품은 인식 가능한 구간 거리가 길면서도 전력소모가 적고 크기를 줄였다. 생체인증과 동작 인식,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구현까지 활용된다.

LG이노텍은 3D 센싱 모듈을 차세대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기계를 만지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고, 사용자 인증과 화면 전환 등도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도 지난해 29억달러에서 2022년 90억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LG이노텍은 4.6mm ToF 모듈을 양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LG이노텍 ToF 모듈. G8 쌍극 전면에 탑재될 예정이다. /LG이노텍

확보한 상태로, 카메라모듈 노하우와 광원 및 렌즈 등 핵심 부품 기술을 내재화해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 고객사 요구에 따라 모듈을 맞춤 개발해 공급할 수도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3D 센싱모듈은 터치 등 기존 2D 기반 입력 기술 이후 휴대전화의 기능을 한 단계 혁신시킬 차세대 3D 기반 입력 장치"라며 "카메라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25일부터 28일까지 단독 생방송

삼성전자 5G 통신장비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를 전 세계에 송출한다. 삼성전자는 25일부터 28일(현지 시간)까지 열리는 MWC 2019를 단독으로 생방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식주관사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 A)와 협력했다.

이번 생방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상용화한 5G 기지국(AU)와 단

말(CPE)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유선 광케이블을 대체해 HDTV 영상을 최대 1Gbps 속도로 지연시간 없이 전송하게된다.

이름은 '모바일 월드 라이브'로, MWC 2019가 열리는 스페인 피라 그랑 비아 전시장과 바르셀로나 지역 280여개 호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좌측 상단에 'Broadcast Over Samsung 5G'를 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 팀장 서기용 전무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축제인 MWC19에서 삼성전자의 앞선 5G 기술을 활용해 미래 방송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5G 통신의 특징인 초고속, 초저지연 기술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GSMA 저스틴 스프링햄 미디어 콘텐츠·방송 담당은 "삼성전자와 GSMA는 5G 기술을 활용해 실감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대우전자-대우위니아 '포털대우'로 사내망 통합

대우전자와 대우위니아가 화학적 결합을 완료했다. 대우그룹은 대우전자와 대우위니아가 사내망을 신규 구축한 '포털대우'로 통합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한 지 10개월만이다. 그룹 규모에 맞춰 계열사와 부서 및 직원들의 소통과 협업 기능을 강화했다.

통합 포털은 계열사별 시스템 메뉴를 제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접근성을 제고했고, 모바일 기기 연동을 강화해 언제 어디서든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우그룹은 자유롭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이같은 사내망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